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		배포일자	2023년 3월 21일(화) 총 2매	
담당부서	인 사 과	담 당 자	• 인재채용팀장 한희순 ☎ 440-2531 • 담 당 자 차성진 ☎ 440-2533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0.7:1
 - 593명 선발에 6,352명 접수, 지난해보다 경쟁률 소폭 증가 -
 - 장애인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 공직진출 기회도 확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, 총 593명 선발 예정에 6,352명이 지원해 10.7: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.

이번 접수는 일반행정·세무·전산·공업·시설 등 직렬 9급 공무원과 7급 수의직 공무원 등 임용을 위해,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.

지난해 2회 임용시험에서 913명 선발에 8,241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,889명(△22.9%) 줄었으나 경쟁률은 소폭 증가했다.

* 최근 경쟁률 : '21년 9.9:1 → '22년 9.0:1 → '23년 10.7:1

모집 지역별로는 ▲인천시와 8개 구는 11.5:1(522명 선발, 6,024명 지원) ▲강화군은 5.0:1(33명 선발, 165명 지원) ▲옹진군은 4.3:1(38명 선발, 163명 지원)의 경쟁률을 나타냈다.

직렬별로는 인천시·구의 전산9급이 6명 모집에 139명이 지원해 23.2: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,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행정 9급은 164명 모집에 2,86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7.4:1로 집계됐다.

또한,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40명과 저소득층 20명, 북한이탈주민 1명을 선발할 계획인데, 경쟁률은 각각 2.5:1, 6.2:1, 7.0:1에 그쳐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는 낮았다.

필기시험은 6월 10일(토)에 인천시 내 중·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, 시험 장소는 5월 31일(수)에 인천시 시험정보 홈페이지(<https://www.incheon.go.kr/gosi>)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.

시는 코로나19 상황에 걸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.

김철수 시 인사과장은 “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지만, 기본 방역대책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안전한 시험장에서 공정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202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